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4일 (음력 2월 8일) 목요일

영산강 죽산보 “활용해야” vs “해체해야” 팽팽



13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생태복원을 위해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해야 된다.” “1635억원의 사업비 투입된 보(狀) 활용 방안 다각도로 검토하고 존치해야 된다.”

13일 전남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보 철거에 찬성하는 측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닷물 유통 대비 위기시 비상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존치시켜 한다는 반대 측 토론자 간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주최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열렸다. 영정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화영 전남대 교수, 김석봉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장 김창원 영산강백길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현황 발표와 찬·반 토론을 했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영산강 내 보 가운데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관리비는 250억원으로 산출된 반면, 향후 투입될 수질관리 등 유지보수비는 333억원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해체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의 신평안으로 보고 적극적인 환경 입장을 낸 반면 백길복원 단체와 상인단체, 일부 주민들은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전략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통해 죽산보의 '전면 해체' 또는 '수문 개방' 후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죽산보 해체 반대 측 패널로 나선 김창원 영산강 백길복원 연구소장은 “16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부족한 수량 확보가 목적이었다. 2008년도 국토부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는 연간 6억의 이르는 극심한 물 부족

4대강 평가위 “해체 관리비 250억 vs 유지비 330억 소요”
반대 측 “농업용수 공급·바닷물 유통 대비해 존치해야”
찬성 측 “강물 가로 막아수질 오염만 부추겨...무용지물”

난을 겪고 있었지만 죽산보 건설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영산강 물그릇은 나주 호 장성호를 다 합쳐도 3억 밖에 안 되지만 소양강은 29억으로 영산강의 30배, 한강은 60억에 달한다”며 “죽산보는 영산강 수계 댐(나주호·장성호)보다 물 공급 능력이 6배나 높은 만큼 물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해체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죽산보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경렬 나주시 전 문화원장도 농업용수 확보·공급 차원 등에서 해체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죽산보 건설은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었다. 사업 이후 영산강 수질도 5급수에서 3급수로 개선됐다”며 “단순히 녹조 때문에 보를 해체하기 보다는 녹조가 인체에 어떤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죽산보 해체를 주장하기 전에 영산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려면 하굿둑부터 개방해야 한다”면서 “바닷물 유입에 대비해 죽산보를 존치 시켜야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고, 죽산보 통선문을 활용한 안전한 백길 복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체 찬성 측 패널로 토론에 나선 주민대

표 이종평(나주 다시먼)씨는 “죽산보 인접 다시먼 죽산리에서 태어나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용수 확보차원의 죽산보 설치를 처음부터 반대했다. 다시면 백룡 저수지와 영산강 둔병천 등 여러 양수장 물 공급만으로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는 만큼 수질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물 흐름을 가로 막고 있는 무용지물 보는 당장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죽산보는 인도교 기능도 없는 데다 죽산보 설치 후 토사가 퇴적돼 양수에 지장을 주고 집중호우 때는 농경지 배수에 악영향을 주고 침수 피해까지 발생 된 적이 있는 만큼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 김도형씨는 “처음부터 보 건설에 반대했다”며 “보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진정한 영산강 살리는 지점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다목적댐을 활용한 충분한 유지수를 하루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죽산보 해체와 관련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영 교수는 다소 중립적인 관점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죽산보 건설로 일부 농경지 침수 피해 개선을 비롯해 농업용수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로활동에도 도움이 됐다. 또 황포돛배 운항을 통해 영산강 지역은 홍어의 거리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수질악화”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녹조현상(유해 남조류)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녹조발생시 남조류 개체수는 mm당 평균 5000개인데 반면, 영산포 선착장에서 측정된 남조류 개체수는 mm당 150만개가 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과연 죽산보가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지 세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DI가 밝힌 죽산보의 내구 연한 50년 중 이미 10년이 지났고 남은 40년간 운영시 경제성 부분에서 나온 평가 결과는 밝지 않다”며 “이는 향후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만으로 수질 개선이 담보 된다면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hoto 漫評

막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에 부딪쳐 25분 가까이 연설을 중단했다.

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김정은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하고,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운동권 외교', '반미·종북, 7짜리'라고 원색 비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이슬라자 됐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가짜 비핵화 리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반미·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며 우리 외교를 반미·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걱정'이라며 청와대·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추위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이 나...



정체도 금도는 있는 법인데...



국민들 보기가 민망해서...

전남 택시요금 6년만에 15.4%↑...4월부터 적용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

전남지역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금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전남도택시운송조

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 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할증은 20%, 시계의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000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금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과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 기자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2019. 4. 4(목) ~ 4. 7(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영암군 YONGAM-GUN

주요프로그램 일정표	4.4(목)	4.5(금)	4.6(토)	4.7(일)
10:00 ~ 12:00	왕인박사 준양제	왕인학상 예술대회	태권도 & 기예무단 시연	그림 벚꽃길 걷기대회
13:00 ~ 14:00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제29회 왕인박사 초모 한시연정백일장	10:00 ~ 16:00 제5회 전국 천자문·경전 생동대회	11:30 ~ 12:00 비보이 쇼베틀
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14:00 ~ 14:30 성암예술단 전통문화공연	11:00 ~ 13:30 전통다례 시연회 & 토크콘서트	12:00 ~ 13:30 왕인전통만리식
14:30 ~ 16:30	낭조골 어울마당	14:30 ~ 16:00 영암 화전놀이 '氣' 찬굴잔치날	13:30 ~ 16:00 영암 3대 민속놀이	13:30 ~ 14:00 나주시립합창단 초청공연
18:30 ~ 19:00	개막행사	16:00 ~ 17:00 추억의 동창회	16:30 ~ 18:30 왕인 청소년 페스티벌	14:00 ~ 16:00 왕인박사 일년가의 퍼레이드
19:00 ~ 21:00	축마방송 & 불꽃놀이	17:00 ~ 17:30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18:30 ~ 19:00 왕인뮤지컬 갤러리쇼	16:00 ~ 17:00 왕인전통연희단 공연
		18:00 ~ 18:30 왕인뮤지컬 갤러리쇼	19:00 ~ 20:30 100리 벚꽃 감성콘서트	18:00 ~ 18:30 폐막행사
		18:30 ~ 21:00 우리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18:30 ~ 20:30 그림의 밤 & 불꽃놀이